

〈九雲記〉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陸 宰 用*

〈차 례〉

- I. 〈九雲記〉에 대하여
II. 〈九雲記〉 연구의 현황

- III. 金進洙의 『碧蘆集』 검토
IV. 마무리

I. 〈九雲記〉에 대하여

〈구운기〉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¹⁾된 작자 미상의 필사본 한문 소설로서, 총 9권 9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는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面數는 모두 666면²⁾이며, 매면 13행, 매행 21자로 이루어져 있어, 총 자수는 18만자 가량 된다. 이를 〈九雲夢〉의 노존본과 비교해 보면, 노존본의 자수가 7만자 가량 되므로, 〈구운기〉가 〈구운몽〉보다 분량이 약 2.6배 정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字體를 살펴보면 楷書와 行書가 번갈아가며 쓰여 있어 중간중간 서체에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부분적으로 구두점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원작자 혹은 전사자가 한 것이 아니라 후에 애독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학교 강사

- 1) 이 작품은 경주 지방의 부호였던 경주 최씨의 후손 崔坡(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의 필두 설립자)이 기증한 汶波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 2) 각 권당 표지를 제외한 본문이 1권:87면, 2권:83면, 3권:68면, 4권:62면, 5권:68면, 6권:70면, 7권:82면, 8권:81면, 9권:6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운기〉는 표제³⁾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운몽〉을 개작하여 분량을 늘린 것인데, 개작하는 과정에서 중국소설인 〈홍루몽〉과 〈경화연〉에서 직접적으로 삽화를 차용해 왔으며, 간접적으로는 〈서유기〉나 〈수호전〉의 영향도 받았다. 문체 또한 이 작품들을 본따 백화체를 사용하였으며, 작품의 주된 스토리는 〈구운몽〉의 그것과 유사하나, 분량을 늘이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중국소설에서 영향 받은 삽화와 군담적 요소 등을 가미하였다. 그 결과 작품의 서사가 〈구운몽〉보다 한층 더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운記〉라는 표제와 작품 서두의 導言에 해당하는 서술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가는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옮긴 후, 이를 후세에 전달하여 독자를 教化시키려는 데 집필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이 작품이 허구적 서사체라기보다는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하는 인상을 은연중에 풍기고 있다. 아울러 〈구운기〉를 본 독자는 일단 〈구운몽〉을 연상하게 되므로, 독자로 하여금 두 작품의 관련성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구운기〉에 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즉 독자를 유인하는 기능도 표제는 지니고 있다.

〈구운기〉의 서술형태상 특징으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敘述의 層位(Narrative Levels)⁴⁾를 문제 삼을 경우, 서두와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外部 이야기(extradiegetic) 속에 内部 이야기(intradiegetic)가 포함된 액자소설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서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둘째, 〈구운몽〉과는 달리 ‘話說, 且說, 却說, 再說’과 같은 화두사와 ‘未知~且看下回分解’와 같은 종결구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매장회를 새로 시작하거나 혹은 서술의 중간중간에 서술자는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요약해 주고 있다. 또한 어떤 한 상황이 끝났을 경우에도 서술자는 가끔 그에 대한 도덕적인—권선징악적인—논평을 가하고 있다.

〈구운몽〉과 대비되는 〈구운기〉의 구성상 특징으로는 다음 몇 가지 사항

3) 各冊의 표지에는 ‘九雲記 一, 九雲記 二……九雲記 八, 九雲記 九’로 적혀 있고, 各卷의 본문 첫면에는 ‘新增才子九雲記, 無名子添刪’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4) 제라르 지브네는 서사물에 드러난 敘述의 層位(Narrative Levels)를 外部 이야기(extradiegetic)와 内部 이야기(diegetic or intradiegetic) 그리고 2차 内部 이야기(metadiegetic)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Gerard Genette, *Narrative Discours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227-231면 참조).

을 들 수 있다. 첫째, 서두에서 서왕모의 반도연과 결부된 천상 세계를 길게 소개하여 공간적 배경을 보다 규모가 크고 다채롭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서왕모의 반도연 장면은 중국소설에서 영향받은 요소인데, 〈서유기〉에서는 간접적인, 〈경화연〉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둘째, 〈구운몽〉에서의 토번의 침입을 일본국의 침입으로 대체하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군담적 요소를 반영하여 군담 자체의 흥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양소유의 영웅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홍루몽〉·〈경화연〉에서 차용한 삽화를 서사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가미시켜, 구성을 다채롭게 하는 동시에, 작중인물들이 누리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 진행의 템포가 느려지고 있다.

인물 서술의 관점을 살펴보면, 먼저 양소유의 탄생 과정에 있어 기자치성, 탄생장애, 탄생신이 등을 동반하게 하여, 고귀한 탄생이라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또한 장수하로 대표되는 주인공의 적대자를 설정하여, 이들의 갈등에 의한 善·惡의 대립이라는 二値的 思考의 틀 속에서 사건을 한층 다채롭게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적대세력에 의한 주인공의 일시적인 몰락이나 패배가 없이 항상 주인공 優位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의 가정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 길게 드러나고 있어, 적대 세력의 몰락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배경 사상을 살펴보면, 〈구운기〉는 유교 윤리에 따른 세속적인 삶—양소유의 삶—을 더욱 부연·강조하면서도, 중국에 가서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⁵⁾

II. 〈九雲記〉 연구의 현황

먼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구운기〉를 거론한 논저들(자료 포함)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以上の 논의는 '육재용, 「〈구운기〉 연구-〈구운몽〉과의 대비 및 중국소설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 국문과 석사논문, 1986.' 참조.

1. 『〈九雲記〉』 九卷 九冊,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파문고 소장.
2. 윤영옥, 「〈구운기〉 攷」,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형설출판사, 1978.
3. ——— 譯, 『〈구운기〉(1),(2),(3)』, 형설출판사, 1982.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5. 육재용, 「〈구운기〉 연구-〈구운몽〉과의 대비 및 중국소설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 국문과 석사논문, 1986.
6. ———,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의 영향」, 『영남어문학』 21집, 영남어문학회, 1992.
7.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8. ———,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2.
9. 오춘택, 「한국고소설비평사연구」,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0.
10. 최용철, 「〈홍루몽〉 감상을 위하여」, 『완역 홍루몽』 제1권, 조설근 지음, 안의운·김광렬 옮김, 청년사, 1990.
11. ———, 「紅樓夢在韓國的影響及研究」,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的回顧與展望論文集』 抽印本, 臺灣 臺北, 1991.10.
12. ———, 「〈홍루몽〉의 한국 전래와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4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1.12.
13. ———,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요약문)」,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고대 중국어문연구회 제24회 학술발표회-, 1992.10.
14. ———,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5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12.
15. ———, 「〈九雲記〉의作者及其與〈紅樓夢〉的關係」, 『紅樓夢學刊』 1993年 第2輯, 文化藝術出版社, 中國 北京, 1993.5.
16. ———, 「양건식의 〈홍루몽〉 평론과 번역문 분석」, 『중국어문논총』 6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3.12.
17. 정규복, 「九雲夢與九雲記之比較研究」, 『중국어학논총』 6집, 고대 중국학연구회, 1992.
18. ———, 「김만중 소설의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집문당, 1993.

19.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2.
 20.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21. 이경단, 「〈홍루몽〉이 〈구운기〉에 미친 영향」, 숙명여대 한문교육과 석사논문, 1993.
 22. 無名子 著, 江琪 校点, 『九雲記』, 江蘇古籍出版社, 中國 南京, 1994.
 23. 劉世德, 「論〈九雲記〉」, 『九雲記』, 無名子 著, 江琪 校点, 江蘇古籍出版社, 中國 南京, 1994.
- 최용철 譯, 「〈九雲記〉에 대하여 論함」, 『중국어문논총』 8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5, 8.

資料에 해당하는 1, 3, 22를 제외한 위의 論著들은 그 논의의 방향을 다음 다섯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다.(일부 논문은 몇 가지 사항을 동시에 거론한 것도 있음.)

- 1)〈구운몽〉과의 대비를 통한 작품의 구성상 특성 및 성격을 밝힌 논의
- 2)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구운기〉의 원천을 밝힌 논의
- 3)작자와 국적 문제를 밝힌 논의
- 4)구운몽계 소설에서 차지하는 소설사적 의의 및 사상과 주제를 밝힌 논의
- 5)창작 연대를 밝힌 논의

1)의 '〈구운몽〉과의 대비를 통한 작품의 구성상 특성 및 성격을 밝힌 논의'로는 2, 4, 5를 들 수 있다. 2,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운기〉는 윤영옥 교수에 의해 발굴, 번역되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2에서 윤교수는 〈구운기〉에 관한 개략적인 해설과 더불어, 〈구운몽〉과의 유사점·차이점을 두 작품간의 대비를 통해 고구한 후, 시공간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 작품 자체의 분석을 함으로써, 후학들에게 〈구운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그는 〈구운기〉의 주된 스토리는 〈구운몽〉과 大同小異하며, 그 내용은 〈구운몽〉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구운몽〉의 一異本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구운몽〉

과의 차이점을 ‘문체의 차이, 虛頭의 새로움, 구성상의 차이, 배경의 상이, 표현의 상이, 장회의 대비’ 등을 들어가며 논하였고, 구성상의 차이점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를 다시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하였다.

조동일 교수는 4에서 ‘구운몽, 사씨남정기계 소설의 변모’를 다루는 가운데 〈구운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구운기〉를 〈구운몽〉의 이본이 아닌, 개작한 작품으로 본 것이 주목된다.

한문본으로만 전하는 〈九雲記〉는 〈구운몽〉을 개작하면서 기본 구상은 그대로 두고 분량을 감절이나 늘린 것이다. 천상의 신선계를 길게 소개해 서두를 삼는 등으로 도가적인 요소를 대폭 확대시켰으며, 중국 소설에서 따온 문체와 표현을 다채롭게 활용했다. 명나라 때의 인물로 설정한 주인공이 일본군의 침입도 물리쳤다고 했다. 〈구운몽〉을 애독하면서 상당한 식자층에 속한 작자가 자기 나름대로 불만스럽게 생각한 점을 고쳐본 회작이라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독자에게 읽힌 작품은 아니다.⁶⁾

이어 필자는 5에서 〈구운몽〉을 개작한 〈구운기〉는 〈구운몽〉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그 독자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고, 일단은 〈구운몽〉과의 대비 연구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운기〉는 〈서유기〉, 〈홍루몽〉, 〈경화연〉 등의 영향을 받아 구성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기도 하였으므로, 〈구운몽〉과의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중국소설의 영향 관계도 함께 고찰하였다.⁷⁾ 그런데 이 분야의 논의는 〈구운기〉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잠시 시도된 후,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구운기〉의 원천을 밝힌 논의’로는 2, 5, 6, 10, 11, 12, 13, 14, 15, 21을 들 수 있다. 이 방면의 논의는 〈구운기〉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488면.

7) 以上の 논의 결과는 제 1 장 참조.

이 〈구운기〉는 표현, 서술 등에서 〈홍루몽〉과 많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부인들이 아패와 투각령을 하여 놀이하는 장면과 그 내용이라든지 거의 상사하며, 낙유원에서 읊은 詠菊詩는 〈홍루몽〉에 있는 국화시와 완전 일치한다. 이러한 점으로 봐 이 두 작품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할애하였다.⁸⁾

먼저 2에서 윤영옥 교수는 이와 같은 언급을 함으로써, 〈구운기〉의 원천 연구라는 비교문학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 후 필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5에서 〈구운기〉에 미친 중국소설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10~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운기〉는 최용철 교수에 의해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교수는 홍루몽 연구(紅學)의 일환으로 〈구운기〉를 중국소설학계에 소개하였고, 中國 학자 劉世德 교수에게는 영남대에 소장된 〈구운기〉의 복사본을 제공하여, 대륙에서 〈구운기〉가 활자화되어 校点·刊行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⁹⁾ 한국어와 中國語로 별도의 논문을 발표하여 일부 논의들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구운기〉에 드러난 〈홍루몽〉의 영향 관계 논의가 12, 14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필자는 6에서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의 영향 관계를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구운기〉의 원천연구에 일조하였다. 논의의 결과는 아래의 도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운몽〉과 〈구운기〉의 장회를 먼저 배열한 뒤, 〈구운기〉의 각장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홍루몽〉·〈경화연〉의 장회 번호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8) 윤영옥, 「〈구운기〉攷」,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형설출판사, 1978, 132면.

9) 또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용철 교수는 劉世德 교수의 논문 「論〈九雲記〉」를 번역·소개하여 국내 학자들이 劉世德 교수의 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일조하였다.

10) 여기서 〈구운기〉의 장회명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파문고에 소장된 9권 9책의 〈九雲記〉를 대상으로 하였고, 〈구운몽〉의 장회명은 정규복 교수가 재구한 「老舊本」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존본」은 上, 下 전체의 장회가 16회로 나뉘어져 있으나, 〈구운기〉에서도 같이 각장회의 회수 표시는 되어 있지 않다.

九 雲 夢	九 雲 記	영향을 준 작품과 장회 번호
〈上〉 1. 老尊師南嶽講妙法 小沙彌石橋逢仙女 2. 華陰縣門女通信 藍田山道人傳琴 3. 楊千里酒樓擢桂 桂蟾月驚被薦賢 4. 倩女冠鄭府遇知音 老司徒金榜得快婿 5. 詠花鞋透露懷春心 幻仙庄成就小星緣 6. 賈春雲爲仙爲鬼 狄驚鴻乍陰乍陽 7. 金鸞直學士吹玉簫 蓬萊殿宮娥乞佳句 8. 宮女掩淚隨黃門 侍妾含悲辭主人	〈卷一〉 1. 西王母瑤池宴蟠桃 釋性眞石橋戲明珠 2. 咸寧縣性眞投胎 衆隣舍潘 普說命 3. 百花姑合席說功過 八仙娥同時降塵凡 4. 華陰閨女唱和楊柳詩 紫虛眞人傳授陰符經 〈卷二〉 5. 楊解元獨占花魁 桂蟾月自擬月婁 6. 假女冠相府彈琴韻 巧春娘粧閣喻弓影 7. 說婚媾老司徒起怒 通關節太學士發誓 8. 楊少游金榜擢壯元 鄭司徒花園迎嬌客 〈卷三〉 9. 鄭小姐書齋賭碁 賈春娘繡閣詠鞋 10. 賈春雲爲仙爲鬼 狄驚鴻乍陰乍陽 11. 金鸞直廬學士吹簫 蓬萊別殿宮娥請詩 12. 秦宮娥掩泣隨黃門 楊學士陳情斗青瑣 〈卷四〉 13. 鄭司徒承旨賴婚 楊學士再疏下獄 14. 日本國潛師犯青州 楊元帥鍊兵出濟南 15. 楊元帥擺開臨鵬陣 倭總兵敗走泰安州 16. 沈 昇烟捨劍訴眞情 吉乎飛出兵說奇計 〈卷五〉 17. 廖先鋒誤陷盤蛇谷	〈경화연〉1회 *, 100회 〈경화연〉3회 〈홍루몽〉3회, 5회

〈下〉	楊元帥做夢白龍潭	
9. 白龍潭楊郎破陰兵 洞庭湖龍君宴嬌客	18. 白龍潭元帥破陰兵 洞庭湖龍王設宮樂	
	19. 平秀突捲兵渡海 楊元帥奏凱還朝	
10. 楊元帥偸閑叩禪扉 公主微服訪閨秀	20. 蘭陽主微服拜佛 鄭小姐承旨入宮	
	〈卷六〉	
11. 兩美人携手同車 長信宮七步成詩	21. 鄭小姐賜爵英陽主 賈春娘續詠喜鵲詩	〈홍루몽〉3회
12. 楊少游夢遊上界 賈春雲巧傳玉語	22. 賞三軍元帥辭封爵 歸花園春娘傳假音	
13. 合卺席蘭英相諱名 獻壽筵鴻月雙擅場	23. 兩公主一席合卺 雙親堂聯車入京	〈홍루몽〉18회
	24. 英陽主諱名貶鄭氏 魏國公假病說鬼話	
	〈卷七〉	
	25. 西園新第兩公主出閣 東樓壽席二佳姬入門	〈홍루몽〉17회 *
	26. 學賢良楊少璉登第 求直言鄭雲錦陳疏	
	27. 胡伯遠按獄假犯人 嚴學初臨刑招吏部	
	28. 悖逆子捨父喪命 奸黨賊籍產就戮	〈홍루몽〉105회
	〈卷八〉	
14. 樂遊原會獵開春色 油壁車招搖占風光	29. 樂遊園賞秋詠菊詩 打圍場看劍聽寶瑟	〈홍루몽〉38회 *
	30. 莊蕤院丞相夢八仙 凝輝閣英陽誕雙男	〈홍루몽〉53회
	31. 英陽主細評栢葉茶 白凌波雅宣牙牌令	〈경화연〉61회 *, 〈홍루몽〉40회 *
	32. 蘭陽主約詠美人詩 桂蟾月闌趣設角令	〈경화연〉75회, 85회
	〈卷九〉	
	33. 三場試六子聯金榜 九雲樓八美說笑話	〈경화연〉70회, 78회, 84회, 85회, 86회, 87회, 91회, 93회
	34. 庚太君開宴羣芳園 兩公主文誓白衣佛	〈경화연〉5회, 91회
15. 駙馬罰飲金卮酒 聖主恩借翠微宮	35. 楊丞相陳疏乞養 眞上人返本還原	〈홍루몽〉110회, 13회
16. 楊丞相登高望遠 眞上人返本還元		〈경화연〉6회, 44회, 46회, 71회 *

(*는 영향의 정도가 심한 부분임)¹¹⁾

이어 이경단 선생은 21에서 〈홍루몽〉이 〈구운기〉에 미친 영향 관계를 다시 거론하였으나, 논의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기존 논의의 재론에 불과해 연구사적 의의는 없는 편이다.

3)의 ‘작자와 국적 문제를 밝힌 논의’로는 2, 5, 9, 13, 14, 15, 16, 17, 19, 20, 23을 들 수 있다. 먼저 윤영옥 교수는 2에서 〈구운기〉의 본문에 적혀 있는 ‘無名子 添刪’이란 말에 주목하여, 號가 ‘無名子’인 尹愔(1741~1826)¹²⁾를 〈구운기〉의 작자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5에서 ‘無名子’의 생존 연대가 〈구운기〉에 영향을 준 〈경화연〉이 간행(1828)된 시기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들어, ‘無名子’가 〈구운기〉의 작자일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였다.¹³⁾

그후 이 방면의 연구에는 큰 진전이 없다가, 오춘택 교수가 9에서 閩巷文人 金進洙의 詩集인 『碧蘆集』에 실린 ‘墨蔦斐虎迄無休 篇什叢殘盡刻舟 豈但梅花空集句 九雲夢幻九雲樓’란 시구를 최초로 소개한 이후,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는 새로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 제 Ⅲ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4)의 ‘구운몽계 소설에서 차지하는 소설사적 의의 및 사상과 주제를 밝힌 논의’로는 5, 6, 7, 8, 18, 20을 들 수 있다.

먼저 5에서 필자는 〈구운기〉는 유교 윤리에 따른 세속적인 삶—양소유의 삶—을 더욱 부연·강조하면서도, 중국에 가서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필자는 〈구운기〉는 1830년 이후 독자들의 요구를 새롭게 의식한 작자가, 자기 만족을 겸하여, 〈구운몽〉을 계승하면서 거기에다 군담적 요소와 중국소설에서 영향 받은 삽화를

11) 옥재용,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의 영향」, 『영남어문학』 21집, 영남어문학회, 1992, 246~247면.

12) 尹愔는 영조 1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정조 때 禮曹佐郎을 지내고 후에 정조 실록편수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술로는 시문 27책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집 6책, 문집 13책만이 전한다. 시문들 중에는 敘景詩가 대부분이나, 長律詩賦中에는 觀燈賦(四月八日)長律八十韻, 詠史四百首(中國歷代歌), 詠東史六百首(東國歷代歌), 泮中(成均館)雜詠二百二十首 등의 敘事詩가 있는데, 당시 民俗과 慣習 制度에 관한 자료가 많이 담겨 있다. (『無名子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 화원구원, 1977, 解題 부분 참조.)

13) 하지만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구운기〉의 창작 연대의 상한선이 1818년임을 고려할 때, 윤기가 〈구운기〉의 작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가미하여 규모를 크게 하는 동시에, 해학성과 서민 의식을 반영하여 근대 소설적인 편린을 갖추도록 개작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신재홍 교수는 7에서 〈구운기〉에 기술된 화원놀이 장면을 “〈구운몽〉에서 나타나는 유우머의 성격이 충분히 형상화되어 있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문소설류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어서 한 가문의 화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작위성까지 엿보인다.”¹⁴⁾라고 평한 뒤, 8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서원 저택에서 소유와 부인들이 모여 여러 놀이를 하는 가운데 돌아가면서 笑話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전부 21화¹⁵⁾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이 대목에서, 그 소화의 내용이 주로 해학적이고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작품이 〈구운몽〉 이래 몽유장편소설이 지녔던 점잖은 웃음으로서의 해학성에서 벗어나 서민적인 취향의 해학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유흥 공간으로서의 양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민적인 유흥과 해학이 이 작품의 미학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작 양상 또한 이 작품이 지니는 의의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구운기〉는 〈구운몽〉의 서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 반영의 측면이나 해학성의 변질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하지만 위의—필자와 신재홍 교수— 견해들은 〈구운기〉의 원천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논의였다. 그래서 필자는 6에서 “위의 고덕체로 표시한 부분들의 내용은 모두가 〈홍루몽〉과 〈경화연〉으로부터 영향받은 酒筵 놀이와 笑話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밝힌 사항이라¹⁷⁾, 지금으로서는 그 의의가 반감되고, 〈구운기〉의 독자성도 다른 곳에서

14)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48면.

15) 사실은 모두 22화의 笑話가 삽입되어 있음.

16)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2, 170면. 고덕체 표시 필자.

17) 곧 朝鮮人の 世界觀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¹⁸⁾라고 말한 뒤, 〈구운기〉의 소설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밝혔다.

작품의 실상이 이렇다고 해서 〈구운기〉의 소설사적 의의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외래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운기〉의 작자는 〈경화연〉과 같은 중국소설의 서술 태도를 본떠서, 작품 속에 博識多通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자적인 자세에서 소설을 쓰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회있을 적마다 〈홍루몽〉과 〈경화연〉으로부터 삽화를 차용하는 것 외에도, 經典과 史書의 내용을 인용하고, 기타 자신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작품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다.……그러므로 〈구운기〉는 이른바 ‘구운몽계’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의 하나로, 작자의 재주와 학식을 드러내고 世教에도 신경을 쓴, 우리 소설사에서는 보기 드문 ‘재학소설’의 범주를 새롭게 열고 시도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¹⁹⁾

18에서 정규복 교수는 “〈구운몽〉은 이후 이루어진 〈옥루몽〉류의 전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중국으로 역수출되어 〈九雲樓〉로 이루어졌고, 또 일본으로도 수출되어 〈夢幻〉으로 변안되었을 정도로 汎東洋的 소설사의 위치를 차지하였고……”²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위의 글은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九雲記’는 언급하지 않고, 김진수의 시구에만 소개되었을 뿐 아직까지 중국이나 국내 어디에서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九雲樓’만을 언급하고 있어, 서술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20에서 장효현 교수는 金進洙의 『碧蘆集』에 실린 시구를 인용하여 작자와 국적 문제를 거론한 뒤, “〈구운기〉는 〈구운몽〉의 골격을 토대로 디테일을 대폭 확충시킨 하나의 재창작인데, ‘텍스트’ 〈구운몽〉에서와 같은 심오

18) 옥재용,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의 영향」, 『영남어문학』 21집, 영남어문학회, 1992, 249면.

19) 옥재용, 앞의 논문, 249~250면. 하지만 위의 견해 또한 金進洙의 『碧蘆集』에 실린 시구의 내용을 알기 전에 내린 결론이었으므로, 지금은 위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 정규복, 「김만중 소설의 연구와 소설사적 문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개영 교수 환락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집문당, 1993, 625면.

한 주제의 구현은 찾기 어렵다.”²¹⁾라고 밝혔다.

5)의 ‘창작 연대를 밝힌 논의’로는 5, 13, 14, 15, 20, 23을 들 수 있다. 먼저 필자는 5에서 〈구운기〉가 백화체를 사용하였고, 〈홍루몽〉과 〈경화연〉에서 삽화를 차용하였다는 데 근거하여 창작 연대를 1830~1900년 사이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상한선을 1830년으로 본 것은 〈경화연〉의 초간본이 1828년에 간행되었다는 일반적인 說²²⁾을 따른 것이었다.

이어 최용철 교수는 13, 14, 15에서 〈구운기〉의 창작 연대를 1830~1850년 사이로 추정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의 폭을 더 좁혔다. 여기서 그가 하한선을 1850년으로 본 것은 金進洙의 『碧蘆集』에 실린 황중현의 서문이 1856년에 쓰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장효현 교수도 20에서 “〈구운루(구운기)〉가 지어진 것은 19세기 전반, 즉 〈경화연〉의 간본이 간행된 1828년으로부터 김진수가 연경을 여행한 1856년 사이의 기간일 것이다.”²³⁾라고 언급하여, 위의 최용철 교수와 거의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劉世德 교수는 23에서 〈구운기〉의 창작 연대를 1818~1820년 사이로 단정하였다. 여기서 유교수는 〈경화연〉의 초간본이 1828년에 간행되었다는 종래의 說을 부정한 뒤, 북경도서관이나 상해도서관 등지에는 〈경화연〉의 道光元年(1821) 刊本이 소장되어 있으며, 〈경화연〉이 최초로 출판된 시기는 이보다도 더 이른 嘉慶年間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구운기〉가 〈경화연〉에서 차용한 삽화 중 ‘黃食’ 笑話를 예로 들어, 〈구운기〉가 依据한 〈경화연〉은 嘉慶二十三(1818)년에 간행된 嘉慶本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淸나라 皇帝 御名の 避諱²⁴⁾문제를 거론한 뒤, 〈구운기〉의 원문에 보이는 ‘寧’자를 예로 들어 고구하여, 창작 연대의 하한선을 嘉慶二十五(1820)年으로 밝혔다. 여기서 하한선의 고증 방법에는 다소 문제

21)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30면.

22) 최근까지만 하여도 국내의 중국소설학계에서는 “〈경화연〉은 대략 1809~1810년 경부터 1820년 사이에 저작되었고, 판본으로는 1828년에 刻成된 芥子園本을 初刻本으로 치고 있다.”는 견해(하정옥, 「〈경화연〉 연구」, 성균관대 중문과 박사논문, 1983, 52~54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23) 장효현, 앞의 논문, 130면.

24) 避諱란 ‘옛날, 말과 글에서 왕이나 높은 이의 이름을 부르기를 피하다.’의 뜻임.

가 있지만,²⁵⁾ 상한선을 1818년까지 끌어 올린 것은 〈구운기〉의 작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Ⅲ. 金進洙의 『碧蘆集』 검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를 거론한 논의로는 2, 5, 9, 13, 14, 15, 16, 17, 19, 20, 23을 들 수 있는데, 2, 5를 제외한 논의들은 모두 金進洙(1797~1865)의 『碧蘆集』²⁶⁾에 실린 詩句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면 먼저 『벽로집』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²⁷⁾

25)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서술상의 모순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단적으로 ‘寧’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글자는 道光帝의 어명에서 두 번째 글자다.……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구운기〉에서는 청대 황제의 어명에 대해 결코 피휘를 하지 않았다.……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구운기의 작자—필자 주)가 관리를 지냈고 글줄 깨나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도광연간에 자신의 붓끝에선 寧자를 甯으로 바꿔써야 한다는 피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그러므로 〈구운기〉의 작자가 소설을 개편할 때 활용한 〈경화연〉은 가경본이고 또한 그 작업의 시기도 가경연간이었을 것이다.”(劉世德, 「論〈九雲記〉」, 『九雲記』, 無名子 著, 江琪 校点, 江蘇古籍出版社, 中國 南京, 1994, 347~348면., 최용철 譯, 「〈九雲記〉에 대하여 論함」, 『중국어문논총』 8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5, 294~295면., 밑줄 필자.)

26) 『碧蘆集』은 『이조후기 여항문학총서』 5권(임형택 편, 여강출판사, 1986.)에 영인 수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거론할 詩, 註, 評은 모두 위의 책 345면에 나오는 내용이다.

참고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碧蘆集』에 관한 해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碧蘆集』: 조선 말기의 閩僑詩人 金進洙의 시집. 4권 2책. 필자본. 김진수 자신이 직접 편집했고, 그의 친구인 黃鍾顯이 評을 가한 것이다. 필사연대는 1856년으로 추정된다. 권두에는 황중현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柳晩恭의 발문이 있다. 4권이 모두 시인데, 시마다 상세한 註와 황중현의 평이 실려 있다. 1권에 110수, 2권에 80수, 3권에 76수, 4권에 68수가 실려 있다. 시의 내용은 황중현이 쓴 서문에도 밝혀져 있듯이 김진수가 북경에 갔을 때 본 그곳의 인물·풍토·유취·기에·초목·금수 등을 소재로 하여 읊은 것이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에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30면)

그런데 최용철 교수는 위의 『碧蘆集』에 관해 “현존하는 필사본은 당시의 원본이 아니고 후에 원본을 근거로 하여 재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과 본문의 제목에서 밝힌 편수와 실제의 편수가 맞지 않아 일부 시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최용철,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5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 46면.)라고 밝힌 바 있다.

27) 校点과 翻譯은 최용철 교수의 앞의 논문 46~48면에 실린 내용을 따름. 단, 일부 어구는 필자가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詩〉

목자의 연이나 배민의 호랑이 잡이는 여태까지도 쉽 없으니
 자잘한 문장을 굵어 모으는 것이 각주구점이나 다를 바 없네
 어찌 다만 매화시를 쓸데없이 모으는 일만이 공허하다 하리오
 〈구운몽〉 소설도 하릴없이 새로운 〈구운루〉로 탈바꿈하는 것을
 墨鳶襲虎迄無休 篇什叢殘盡刻舟 豈但梅花空集句 九雲夢幻九雲樓

〈註〉

목연:〈한비자〉 [외저기좌상편]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목자가 삼
 년이 걸려 나무로 연을 만들어 띄웠는데 하루를 날리고는 망가져 버렸다.
 제자들이 말했다. “나무연을 날리시다니 선생님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십니
 다.” 목자는 이 말을 듣고는 “수레 끌채의 썰기를 만드는 기술보다는 못하
 니라. 지척의 나무로서 한 시대가 다하도록 없어지지 않고 서른 섬의 무게
 를 이끌 수 있으니 그러하다. 그것은 멀리 가고 많은 힘을 내며 오랜 세월
 을 견디는데 지금 나는 삼년간 연을 만들어 한순간에 망치고 말았다.”고 말
 했다. 혜자는 “목자가 수레 끌채의 썰기를 만드는 데는 능하고 연을 만드는
 데는 서투르다.”고 말했다.

「墨鳶」韓非子外儲記左上篇:墨子爲木鳶三年, 而飛一日而敗, 弟子曰, 先
 生之巧至矣, 能使木鳶飛, 墨子曰, 不如爲車輓者巧也, 用咫尺之木, 不廢一
 朝之事而引三十石之任, 致遠力多久於數歲, 今我爲鳶三年飛一日敗, 惠子曰,
 墨子巧爲輓拙爲鳶.

배호:이조의 〈국사보〉에 이런 얘기가 있다. 배민이 호랑이 사냥에 능하
 여 일찍이 하루에 서른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 한 노인이 와서 그것은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작은 범에 속하는 표범이라고 하면서 장군이
 정녕 호랑이를 만나면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노인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삼십리되는 곳에 때때로 출몰하니 가보라고 일렀다. 배민이 말을
 몰아 달려가 보니 우거진 숲속에서 과연 진짜 호랑이가 뛰어 나왔다. 체구
 는 작아도 기세가 등등하여 사납게 생겼다. 땅에 엎드려 우렁차게 포효하니
 산과 바위가 무너지는 듯했다. 배민의 말이 두려워하여 뒷걸음 쳐 활과 화
 살을 모두 떨어뜨리고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그후 배민은 부끄
 러워 더 이상 호랑이 사냥을 하지 않았다.

「裊虎」李肇國史補：裊旻善射虎。嘗一日斃虎三十。有一老至曰，此皆彪也，似虎而非，將軍若遇眞虎，無能爲也，自此而北三十里，往往有之。旻躍馬而往次，叢薄中，果有眞虎騰出，狀小而勢猛，踞地而吼，山石皆震裂，旻馬辟易，弓矢皆墜，殆不能免。自此慙愧不復射虎。

편집:강문통의 잡채시에 ‘소매 속에 짧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고, 이 선은 “환자의 신문에 ‘소설가는 자질구레한 말을 모아 가까운 일에 비유하여 짧은 이야기를 꾸민다’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篇什」江文通雜體詩，袖中有短書。李善曰，桓子新論，若其小說家，合叢殘小語，近取譬論，以作短書。

매화:강희 시대 사람인 나경성이 매화시구 칠언율시와 칠언절구 각각 일백수를 모아, ‘聖敎의 序’를 본받는다라는 글자를 적어 책으로 처음 간행하였는데, 그 한 구절을 들어보면 ‘선달이 다한 산중에는 삼척의 눈이 쌓이고, 달빛이 비친 누각 위에는 오경의 종소리가 들리네’와 같은 것이다.

「梅花」康熙時人羅景星，集梅詩句，七律七絕，各一百首，書模聖敎序字，開刊，其聯一句，臘盡山中三尺雪，月斜樓上五更鍾。

우리나라 소설인 〈九雲夢〉을 자신의 뜻에 따라 분량을 늘이고 부연하였으니 예를 들면 楊少游를 楊震의 후예로 하고 賈春雲을 賈充의 후예로 한 것 등이다. 다른 인물들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권두에는 김성탄의 사대기서처럼 각 인물의 삼화(繡像)를 그려 넣어 10책으로 만들고, 서명을 〈九雲樓〉로 고쳤다. 자서에 말하기를 “내가 西省의 벼슬을 하고 있을 때 배에서 〈九雲夢〉을 얻어 읽었는데 즉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이어서 내용은 가히 채택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조선에서 패관야사의 책을 짓는데 능숙하지 않아 이를 고쳐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我東小說「九雲夢」增演己意，如楊少游系以楊震，賈春雲系以賈充，他皆倣此。皆寫像於卷首，如聖歎四大書，著爲十冊，改名曰「九雲樓」。自序曰：余官西省也，於舟中得見「九雲夢」，卽朝鮮人所撰也，事有可采，而朝鮮不嫻於稗官野史之書，故改撰云。

〈黃鍾顯의 評〉

集句의 법은 대개 석만경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가지 제재로 2백수를 모

은 자체가 고금의 기이한 재주라고 하겠다. 그러나 패사연의(小說)와 같은 것은 절반이 근거없는 허황된 것에 속하는데, 楊少游를 楊震의 후예로 하고, 八仙女에게도 모두 계파가 있게 하고, 권두에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은 無에서 有를 만들고 虛를 實로 꾸미는 것이니,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바이다. 강희연간(1662~1722)에 김성탄의 〈水滸傳〉 판각이 불에 태워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集句之法, 蓋始於石曼卿, 以一題集二百首, 可爲古今奇才. 若稗史續義, 半屬烏有, 而以至楊少游系出楊震, 八仙女皆有系派, 寫影於篇首, 以無爲有, 反虛成實, 有關傷敗風俗. 康熙時, 毀破聖嘆[水滸傳]刻板, 亦由是耳.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딕체로 표시한 부분이다. 먼저 오춘택 교수는 9에서 위의 내용을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여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를 고구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일부를 잘못 해독하여 梅花가 〈구운몽〉을 〈구운루〉로 바꾸었다고 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구운기〉는 미처 언급하지 않았다.

정규복 교수도 17에서 金進洙의 詩를 소개한 뒤, 清代 康熙朝 文人 梅花가 〈구운루〉를 지었다고 했고, 〈구운기〉와 〈구운루〉를 동일 작품으로 보았다.

진경환 선생은 19에서 〈창선감의록〉의 新增本人 〈화씨충효록〉을 거론하면서, ‘新增’의 예로 ‘新增才子 九雲記’를 들며 『벽로집』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는 여기서 〈구운기〉와 〈구운루〉를 동일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자료 해독을 잘못하여 〈구운기〉의 작자를 羅景星으로 보았다.

장효현 교수도 20에서 金進洙의 詩와 註, 黃鍾顯의 評文을 모두 번역, 인용하면서 〈구운기〉의 작자 문제를 거론하였다.²⁸⁾ 하지만 그 역시 앞서 언급한 「梅花」句의典故와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을 바로 연결하여 해독을 한 결과, 〈구운루〉의 작자를 羅景星으로 보았다.

영남대본 〈신증재자구운기〉에 보면, 양소유를 楊震의 후예로 설정해 장황한 가

28) 장효현 교수의 위의 논문은 출판 사정상 미발표 원고 상태로 1년간 묵혀 있었다. 따라서 오춘택 교수의 논의가 있을 후, 김진수의 詩와 註, 황종현의 評文을 〈구운기〉와 관련시켜 처음으로 논의한 학자는 장효현 교수라고 할 수 있다.

제의 설명이 덧붙여 있는 대목이 있으며, 양소유가 말년에 九雲樓를 지어 娛遊하는 대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영남대본 〈구운기〉는 바로 중국인 羅景星이 개찬한 〈구운루〉임에 틀림없는 듯하다.²⁹⁾

즉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장교수는 李遇駿(1801~1867)의 『夢遊野談』 ‘小説’ 장에 수록된 〈구운몽〉에 관한 구절³⁰⁾을 방증으로 들며, 〈구운기〉를 중국인 羅景星이 개찬한 〈구운루〉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그는 곧 〈구운루(구운기)〉의 창작연대(1828~1856)를 제시하면서, “〈구운루(구운기)〉의 작자인 羅景星이 康熙 시대(1662~1722)의 사람이라는 기록에는 의문이 간다.”³¹⁾라고 하여, 羅景星이 〈구운루(구운기)〉의 작자라는 사실에 관해 신중을 기하기도 했다.

최용철 교수는 13, 14, 15, 16에서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는 14에서 金進洙의 詩와 註, 黃鍾顯의 評文을 번역, 인용한 후, 〈구운기〉의 내용(楊震에 관한 고사 등)을 일부 언급하면서, 〈구운루〉가 현존하는 〈구운기〉의 원본에 해당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구운몽〉을 개작한 작품이 〈구운루〉이고, 그것을 다시 필사할 때에 고의로 〈구운기〉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진수의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였을 때, 〈구운루〉는 10권짜리 활자본으로 볼 수 있으며 서문이 실려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작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구운기〉에서처럼 ‘무명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삽화와 서문이 실린 첫권을 빼고 나머지 9권의 본문은 13행에 21자 내지 22자의 형태를 그대로 필사하면서 각권마다에 ‘무명자첨산’이란 필명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29) 장효현, 「〈구운몽〉의 주제와 그 수용사에 관한 연구」,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29면, 고딕체 표시 필자.

30) “중국 문사들이 이(구운몽)를 보고, 글의 體裁나 사상은 심히 좋으나 그 규모가 적고 소략함이 애석하다고 했다(中原文士見之 以爲機軸甚好 而恨不能鋪張其事以成大篇幅云).”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 출판부, 1981, 304면, 성현경,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56~57면, 참조.

31) 장효현, 앞의 논문, 130면.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작자와 작품명 및 원본에 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앞으로 관련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³²⁾

여기서 최교수는, 고딕체로 표시한 ‘그대로 필사하면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운루〉와 〈구운기〉가 형태(권수의 차이, 권두 삽화의 유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그는 16에서 “〈구운몽〉의 줄거리를 다시 쓴 연대 미상의 한문소설 〈구운기〉에서 명확하게 〈홍루몽〉의 영향이 보이고 있지만 작자의 국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³³⁾라고 밝히고 있어, 작자와 국적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에서 劉世德 교수는 『벽로집』, 〈구운몽〉, 〈구운기〉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뒤, 〈구운기〉의 작자를 중국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九雲樓〉就是〈九雲記〉.

〈九雲夢〉是朝鮮小說,〈九雲記〉却是一部中國小說.

韓國嶺南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的〈九雲記〉漢文抄本,是傳抄本.

〈九雲記〉原本裝訂爲十冊,后在傳抄過程中被刪并爲九冊.

〈구운루〉는 곧 〈구운기〉다.

〈구운몽〉은 조선(한국)소설이지만 〈구운기〉는 중국소설이다.

한국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구운기〉 필사본은 전사본이다.

〈구운기〉의 원본은 10책으로 되었으며 전사과정에서 9책으로 되었다.³⁴⁾

以上 『碧蘆集』의 내용을 근거로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를 거론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의 논의들은 거의가 『벽로집』에 수록된 자료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벽로집』

32) 최용철,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5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 53면. 고딕체 표시 필자.

33) 최용철, 「양견식의 〈홍루몽〉 평론과 번역문 분석」, 『중국어문논총』 6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3, 270면.

34) 劉世德, 「論〈九雲記〉」, 『九雲記』, 無名子 著, 江琪 校点, 江蘇古籍出版社, 中國 南京, 1994, 349면. 최용철 譯, 「〈九雲記〉에 대하여 論한」, 『중국어문논총』 8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5, 296면.

의 내용과 〈九雲記〉의 내용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벽로집』에 수록된 자료와 『구운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구운기〉의 작자·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벽로집』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인이 〈구운몽〉을 增演하여 〈九雲樓〉를 지었다.
 2. 양소유를 楊震의 후예로 하였다.
 3. 가춘운을 賈充의 후예로 하였다.
 4. 다른 인물들도 모두 양소유·가춘운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워 系派(系統, 血統)가 있게 했다.
 5. 권두에는 각인물의 插圖를 그려 넣어 10책으로 만들었다.
- (金進洙의 註에서)

1. 양소유를 楊震의 후예로 하였다.
 2. 八仙女에게도 역사적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워 系派가 있게 했다.
 3. 권두에는 각인물의 插圖를 그려 넣었다.
- (黃鍾顯의 評에서)

그런데 김진수가 註에서 밝힌 내용은 황중현이 評에서 밝힌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전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중국인이 〈구운몽〉을 增演하여 〈九雲樓〉를 지었다.

우선 〈九雲記〉와 〈九雲樓〉는 제목이 다르다. 작중인물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한 김진수가 제목을 잘못 기록했을 리는 없다. 다만 〈九雲記〉의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九雲樓’라는 말이 직접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4군데나 있어, 두 작품의 상호 관련성만은 배제할 수 없다.

① 위왕은 군방원 안에 있는 여러 누각을 머느리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올라가 노닐고 구경할 곳이 없게 되어 원중에 특별히 한 누각을 지었다. 곡절유랑(曲折遊廊)에 주함채각(朱檻彩閣)은 극히 넓고 그 꼭지는 구름

위에 치솟았다. 여덟 부인과 더불어 모여 놀겠다는 뜻으로 九雲樓라 이름지어 붙였다. 매일 여덟부인과 더불어 九雲樓에 올라가 휘파람 불며 시를 읊었다. 누 아래는 桂花가 가득하고, 때는 가을이라 온 동산이 붉음으로 가득차고, 향기는 십리에까지 퍼져나갔다. 위왕이 하루는 九雲樓에 올라 갈채를 보내더니, 두 공주와 여섯 남자가 다 모여 왔다.(윤영옥 역, 『〈구운기〉(3)』, 형설출판사, 1982, 200~201면. 以後 『〈九雲記〉』의 번역 인용은 위의 책에 의거함.)³⁵⁾

②진숙인이 영양에게 황급히 물었다. “조반을 어디다 차려 놓을까요?” “태대께서 계시는 곳에 갖다 차리시오.” 유태군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돌려 말했다. “九雲樓가 좋지 않을까. 너희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차려 놓아라. 우리들이 거리로 가겠다.”(〈구운기〉(3), 222~223면.)³⁶⁾

③한림 형제 여덟이 하루는 같이 九雲樓에 올라 술마시며 즐겨하다가 한림이 말을 시작했다.(〈구운기〉(3), 235면.)³⁷⁾

④위왕은 그 은총에 감사하고 돌아와서 성은이 응성함을 말하고, 두 공주 여섯 남자와 더불어 손자 몇을 데리고 九雲樓에 올라갔다. 다시 술을 내어놓고 고금을 평론하다가 술이 반쯤 취하게 되었다.(〈구운기〉(3), 246면.)³⁸⁾

2. 양소유를 楊震의 후예로 하였다.

35) 魏王 以群芳園裏諸樓閣 各爲諸姊妹女之所有 欠登臨遊玩之沒處 園中別構一樓 曲折遊廊 朱檻彩閣 極其寬豁 上入雲霓 取八夫人與同會遊之義 以九雲樓 每與八夫人登臨嘯詠 樓下桂花最多 時值秋天 滿園紅紫 香聞十里 魏王一日登樓喝采 兩公主六娘子俱會(『〈九雲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파문고 소장, 33회, 9권 10면. 以後 『〈九雲記〉』의 원문 인용은 위의 책에 의거함.)

36) 秦淑人忙問英陽 早飯在那裡擺上 英陽道 太太在那裡 就在那裡擺了 庚太君聽說 便回頭說 九雲樓那裡好 你就帶了人擺去 我們從這裡去(『〈九雲記〉』 34회, 9권 31~32면.)

37) 却說 翰林兄弟八人 一日同登九雲樓 飲酒湛樂 翰林開言道(『〈九雲記〉』 34회, 9권 43면.)

38) 魏王……恩謝退朝 俱道聖眷隆盛 因與兩公主六娘子 携了兒孫幾個 同登九雲樓 更進盃酌 評古論今 酒至半酣(『〈九雲記〉』 35회, 9권 53면.)

이 대목에서의 ‘九雲樓’는 〈구운몽〉 후반부(16회 앞부분)에 드러나고 있는 ‘高臺’에 해당된다. 참고로 〈구운몽〉의 이 대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翠微宮西畔有高臺 登臨則八百里秦川 如掌樣兒也 丞相最愛其臺 是日與兩夫人六娘子 登其上 頭挿一枝黃菊 以賞秋景”(정구복, 『구운몽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278면. 以後 〈九雲夢〉의 인용은 위의 책에 의거함.)

이 항목은 〈구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구운기〉의 이 부분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호광성 무창부 함녕현에 한 孝廉이 있으니 성은 楊이고 이름은 繼祖요 자는 仁舉였다. 이 사람은 東漢 安帝 때의 尙書 楊震의 후예였다. 震이 일찍이 자사로 있을 때, 전에 그가 천거한 王密이 밤에 찾아와 금덩어리를 주었다. 그래서 진이 말했다. “故人은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고인을 모르는구나.” “늦은 밤이라 알 턱이 없습니다.”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리오.” 하고 물리쳐 받지 않았다.³⁹⁾……明 嘉靖 때에 이르러 후손 가운데 知諫院에 있는 彦이 있었는데……繼祖는 곧 彦의 아들이다.(〈구운기〉(1), 33~34면.)⁴⁰⁾

3. 가춘운을 賈充의 후예로 하였다.

이 항목은 〈九雲記〉의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 항목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김진수가 〈九雲樓〉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註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토대로 註를 작성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楊震의 이름을 정확히 표기할 정도라면, 賈充의 이름도 정확히 표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다른 인물들도 모두 양소유 가춘운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워 系派(系統, 血統)가 있게 했다.

39) 양소유가 청렴한 집안의 후예임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위의 고사는 後晉 시대의 李瀚이 지은 『蒙求』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40) 却說 湖廣省武昌府咸寧縣 有一位孝廉 姓楊雙名繼祖字仁舉 是東漢安帝時尙書楊震之後 震嘗爲刺史之郡 前震所舉王密爲令 夜懷金遺之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密曰 暮夜無知 震曰 天知神知我知子知 何爲無知 却而不受……及至有明嘉靖時 後孫有知諫院諱彦……那繼祖 這是彦之子也(『九雲記』 2회, 1권 28~29면).

먼저 이에 관한 〈九雲記〉의 본문을 제시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참고로 〈九雲夢〉의 이 대목도 함께 제시한다.

1. 鄭瓊貝

〈구운몽〉: 一處有處女……六代公侯三代相國(187면.) 原來鄭司徒 無他子女 惟有一女小姐而已(188면.)

〈구운기〉: 원래 鄭司徒는 이름은 繡이고 자는 玄寶, 호는 石園이다. 天姿는 老成하고 忠愼하고도 淸直했다. 옛날 大臣의 품모가 있었다. 年老해도 아들 없이 오직 딸만 있었다. (〈구운기〉(1), 131면.)⁴¹⁾

2. 李簾和

〈구운몽〉: 時皇太后 有二男一女 皇上及越王 蘭陽公主也(213면) 蘭陽公主名簾和 其玉簾刻簾和二字 故以此名之(214면.)

〈구운기〉: 원래 世宗皇帝 張皇后는 한 공주를 낳아 駙馬都尉 李世迪에게 시집을 보내었다. 공주는 평소 숙덕이 있었다. 하루는 꿈에 神女를 보았는데, 그녀는 한 날의 명주를 주었다. 공주는 받아 삼키고 한 딸을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연지와 옥분을 바른 듯이 아름다웠다. 세살 때 공주는 세상을 떠났다. 穆宗 李皇后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궁중에 데리고 와 딸 삼아 키우며, 蘭陽公主라고 작호도 주었다. 그래서 御妹가 되었다. (〈구운기〉(1), 248면.)⁴²⁾

하루는 난양의 꿈에 한 神女가 하늘에서 내려와 옥통소가 있는 곳을 가리켜 달라 하여……태후와 황야는 기이하게 여겨 공주의 이름을 바꾸어 簾和라고 하였다. (〈구운기〉(1), 249면.)⁴³⁾

41) 且說 原來鄭司徒名繡字玄寶號石園 天姿老成忠愼又是淸直鍊達 有古大臣風 年老無子 惟有一女 (『〈九雲記〉』 6회, 2권 31면.)

42) 原來世宗皇帝張皇后 誕下一位公主 下適駙馬都尉李世迪 公主素有夙德 一日夢見神女 贈一顆明珠 公主受而吞下 仍生一女 真是生得透脂染成 玉粉佳來 三歲公主棄世 穆宗李皇后極爲悲憐 取以入宮養育爲女 賜爵號蘭陽公主 實爲御妹 (『〈九雲記〉』 11회, 3권 47~48면.)

43) 一日蘭陽夢 一神女自天上翩翩下來 命指玉簾……太后皇爺大爲奇異 乃改名公主爲簾和 (『〈九雲記〉』 11회, 3권 48면.)

그때 천자는 양소유에게 말했다. “짐에게는 한 누이가 있는데 부마도위 이세적의 딸이오. 공주낭랑께서 일찍이 돌아가셔서 태후낭랑께서 그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데리고 와 기르고 어루만져 딸로 삼으셨오. 그래서 실로 御妹가 되어 난양공주라 작호를 내렸소.”(〈구운기〉(1), 266면.)⁴⁴⁾

3. 秦彩鳳

〈구운몽〉: 原來此女子 姓秦氏名彩鳳 卽秦御史女子也 早喪慈母 且無兄弟 (175면) 此宮女非他人也 姓秦名彩鳳 華州秦御史女子 御史死於非命 沒入於宮掖(216면.)

〈구운기〉: 원래 이 다락 위의 여자는 侍御史 秦義和의 딸로 이름이 彩鳳이다. 어사는 서울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劉氏는 일찍 돌아가셨다. ((1), 77면.)⁴⁵⁾

각설 화음현의 秦御史義和는 한 번 간당의 陷害를 입어 一門이 주륙당하고 婦女는 沒入되었다. 어사에게는 다만 외동딸 彩鳳이 있었는데, 掖庭에 몰입되어 宮娥가 되었다. (〈구운기〉(1), 259면.)⁴⁶⁾

4. 賈春雲

〈구운몽〉: 原來春娘 姓賈氏 其父西蜀人也 上京爲丞相府胥吏 多有功勞於鄭司徒家矣 未久病死 時春娘年纔十歲 司徒夫妻 憐其無依 收置府中 使與小姐同遊(192면.)

〈구운기〉: 원래 春雲은 성은 賈氏이고, 그 아버지는 宣德府 益州 사람이었다. 그는 程式文을 잘해 鄉貢으로 서울에 있었으나 여러번 천거되지 못하였다. 후에 丞相府의 연리가 되어 사도의 顧眷을 많이 입었으나, 뒤에 불행이도 병사하고 말았다. 그의 처 蘇氏도 잇달아 죽었다. 다만 한 딸 春雲만 있어, 나이 겨우 열둘로 사도 부중에 의탁했다. 최부인이 그의 외로움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경패와 더불어 벗이 되게 하였다. (〈구운기〉(1), 145~

44) 天子下旨道 朕有一妹 寃駙馬都尉李世迪之女 公主娘娘早世 太后娘娘憐其孤寡 入育太后跟前 撫而爲女 實御妹也 賜爵蘭陽公主(『〈九雲記〉』 12회, 3권 62면.)

45) 原來這樓上的女子是誰 侍御史秦義和之女 幼名彩鳳 御史在京不還 母劉氏早喪(『〈九雲記〉』 4회, 1권 68면.)

46) 却說華陰縣秦御史義和 一被奸黨陷害 一門誅戮 婦女沒入 御史惟有一女彩鳳 沒入掖庭爲宮娥(『〈九雲記〉』 12회, 3권 56면.)

146면.)⁴⁷⁾

부인이 말하기를, “……춘랑의 아버가 옛날에 우리집(정사도 집-필자 주)에서 수고를 했고, 또 노야께서 늘 춘랑에게 좋은 배필을 구해 주어서 녀와 더불어 항상 같이 있게 하려고 하고 계시다.”(〈구운기〉(1), 195면.)⁴⁸⁾

5. 桂蟾月

〈구운몽〉:彼娘子姓桂 名蟾月 非但姿色歌舞 獨步於天下 古今詩文 無所不通(182면) 蟾月於枕上 謂生曰……妾本韶州人也 父曾爲此州驛丞矣 不幸病死於他鄉(184면.)

〈구운기〉:여러 아가씨들 중, 얼굴은 東으로 하고 등은 西로 하여 난간 머리에 말없이 반쯤 의지하여 앉은 이가 곧 桂娘子인데, 이름은 蟾月이라고 하며 지금 낙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자태와 고운 얼굴에다 歌舞가 일대에 드날릴 뿐 아니라, 古今 詩文에 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구운기〉(1), 103~104면.)⁴⁹⁾

계랑은 손수전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 “妾은 본시 韶州 사람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가 없어 혼자 아버님을 뵈시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본디 鄉貢으로 이 고을의 驛丞으로 승진하여 옮겨 왔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구운기〉(1), 114면.)⁵⁰⁾

6. 狄驚鴻

〈구운몽〉:(蟾月 曰) 驚鴻與妾 情若兄弟 驚鴻一生本末 清略陳之矣 驚鴻卽播州 良家女也 早失怙恃 依其姑母 自十歲美麗之色 名於河北(185면.)

47) 原來春雲姓賈氏 其父宣德府益州人 善于程式文 鄉貢在京 屢中不舉 後爲丞相府掾吏 多蒙司徒顧眷 後又不幸病死 妻蘇氏相繼而亡 只有一女春雲 年纔十二 托于司徒府裡 崔夫人憐他孤 梵收與瓊貝姑娘相伴(『〈九雲記〉』 6회, 2권 44면.)

48) 夫人道……且念春娘之爺 有勞於昔 老爺每欲爲春娘求一良匹 與女孩兒不與相離則個(『〈九雲記〉』 9회, 3권 4면.)

49) 諸娥中 這面東背西 檻頭無語半倚的 便是桂娘子 名蟾月 當今洛陽粉頭中第一有名的 不但姿容歌舞擅於一代 古今詩文 無有不通(『〈九雲記〉』 5회, 2권 6면.)

50) 桂娘方纔的用手帕握了臉兒 說道 妾本韶州之人 母氏早喪 他無兄弟 獨侍嚴父 亡父本以鄉貢 陞遷爲此州驛丞 不幸病死(『〈九雲記〉』 5회, 2권 16면.)

〈구운기〉:섬월이 또한 말하기를, “……狄娘은 곧 妾의 中表 제매(어머니 쪽의 從兄弟-역자 주)로서 첩보다 한 달 먼저 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은 상에서 밥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해서 특별한 제매입니다. 커서 각기 헤어졌으나 천하의 기재절색입니다. 적랑도 양가집 딸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숙모에게서 자라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일세에 떨쳤습니다.”(〈구운기〉(1), 119~120면.)⁵¹⁾

경홍이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다. “첩이 바로 적백란입니다. 첩은 본래 河北 사람으로 桂娘과는 中表 제매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라 情이 한 몸과 같아 항상 한 분을 같이 섬기기로 하늘에 함께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첩은 본래 양가집 딸로, 변방에 외지게 살았기 때문에 大人君子를 만나 평생을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구운기〉(1), 240~241면.)⁵²⁾

7. 沈裊烟

〈구운몽〉:妾本楊州人也 世爲大唐之民 幼失父母 從一女子 爲其弟子 其女子劍術神妙 教弟子三人 卽秦海月 金綵虹 沈裊烟 裊烟卽妾也(223면.)

〈구운기〉:검랑은 재배하고 몸을 일으켜 대답했다. “첩은 본래 楚나라 사람입니다. 성은 沈이고 이름은 裊烟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남의 집 손님으로 지내다가, 열살 때 한 神師를 만났는데, 그 분은 가르칠 만하다고 말씀하시고는 劍術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 가르친 자는 세 사람인데, 곧 秦海月, 金彩鳳, 沈裊烟입니다. 요연이 곧 첩입니다.”(〈구운기〉(2), 61면.)⁵³⁾

8. 白凌波

〈구운몽〉:吾娘子 卽洞庭龍君小女也 近日暫離宮中 來寓於此地矣(225면.)

- 51) 蟾月又道……狄娘是妾之中表姊妹 長妾一月 自幼在一張卓兒吃飯 一張床兒上睡覺 比別的姊妹們分外的不同 後來大了 隨各星散 端的天下之奇才绝色 狄娘亦良家女 早失怙恃 育於舅母 美麗之名 稱於一世(『九雲記』 5회, 2권 19~20면.)
- 52) 驚鴻斂衽答道 妾是狄伯鸞 妾本河北人 與桂娘爲中表姊妹 自幼同室情同一身 常以同事一人 祝天共誓……妾本良家女 僻居天涯 無以觀大人君子 以托終身之事(『九雲記』 11회, 3권 41~42면.)
- 53) 那劍娘再拜 粘起身道 妾本楚人 姓沈名裊烟 早失怙恃 流落羈旅 年十歲遇一神士 謂妾可教授以劍術 師之所教三人 卽秦海月 金彩鳳 沈裊烟 裊烟卽妾也(『九雲記』 16회, 4권 49면.)

妾卽洞庭龍王末女凌派也 妾之始生也 父王朝於上界 逢張真人 卜妾之命 真人揲蓍曰 此娘子前身 卽仙女也 因罪謫降 爲王之女 而畢竟復得人形 爲人間貴人之姬妾 享富貴榮華之樂 悉耳目心志之娛 終歸佛家 永爲大禪矣(226면.)

〈구운기〉: 낭자는 몸을 굽혀 말을 시작했다. “첩은 동정용왕의 막내딸이며, 이름은 凌波입니다. 첩이 처음 태어날 때 父王께서 上界에 조회하러 가셔서 장진인을 만나 첩의 命을 점쳤습니다. 진인은 손 사이에 시초를 끼고, ‘이 아이의 命은 前身이 仙娥로서 塵緣에 의하여 謫降하여 왕의 딸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인간의 貴人을 배필로 삼아 富貴榮華의 풍성함과 耳目心志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 복록이 끝이 없으며, 마침내는 正果를 얻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구운기〉(2), 88면.)⁵⁴⁾

위의 내용 중 핵심 사항만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九 雲 夢	九 雲 記
鄭瓊貝	정사도의 딸	사도 정훈의 딸
李簫和	황태후의 딸	부마 이세적의 딸
秦彩鳳	진어사의 딸	어사 진의화의 딸, 母는 유씨
賈春雲	父가 西蜀 사람	父가 宣德府 益州 사람, 母는 소씨
桂蟾月	父가 韶州 驛丞을 지냄	父가 韶州 驛丞을 지냄
狄驚鴻	播州 양가집 딸	河北 양가집 딸
沈梟烟	양주 고을 당나라 백성	초나라 사람
白凌波	동정용왕의 막내 딸	동정용왕의 막내 딸

54) 娘子欠身開言道 妾洞庭龍王之末女 雙名凌波是也 妾之始生 父王朝上界 逢張真人卜妾之命 真人揲蓍道 此命前身是仙娥 因塵緣謫降 爲王之女 當配人間之貴人 享富貴榮華之盛 悉耳目心志之娛 福祿無疆 終得正果(『九雲記』 17회, 5권 12면.)

〈구운기〉의 작중인물들 중 역사적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워 系派(系統, 血統)가 있게 한 것은 정경패, 이소화, 진채봉 3명뿐이다. 〈구운몽〉과 대비하여 이 부분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인물들도 이 3명뿐이다. 따라서 이 항목도 〈구운기〉의 내용과 일부만 부합함을 알 수 있다.

5. 권두에는 각인물의 挿畵를 그려 넣어 10책으로 만들었다.

이 항목도 〈구운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구운기〉는 모두 9권 9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두에 각인물의 挿畵가 그려져 있지 않다.

결국 위의 다섯 항목들 중 〈구운기〉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은 2번밖에 없다. 3, 5번은 전혀 부합되지 않고, 4번은 일부만 부합되고, 1번은 두 작품—〈구운루〉와 〈구운기〉—의 상호 관련성만을 암시해 준다.

한편 이에 관해 최용철 교수는 14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서, 〈구운기〉가 〈구운루〉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것⁵⁵⁾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운기〉와 〈구운루〉는 한 글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현재 9권 9책이 남아 있지만 〈구운루〉의 권두에 삽화가 들어 있었다고 한 사실을 비취볼 때 본문은 9책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대소설에서 첫 권은 제목과 목록, 삽화, 총평 등이 수록되고 두번째 책부터 본문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홍루몽〉 후기 판본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같음.) 또 현존하는 〈구운기〉가 원본이 아니고 별도의 원본을 근거로 필사한 것임은 분명하다.⁵⁶⁾

그런데 현존하는 〈구운기〉 제 1권 권두에 수록된 목록의 분량이 4면임을 고려할 때, 각인물(양소유와 팔부인)의 삽화가 9면을 차지한다고 보면, '제목과 목록, 삽화, 총평(자서 포함)' 부분의 분량을 다 합쳐도 15~20면을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운기〉 각권의 면수가 62~87면임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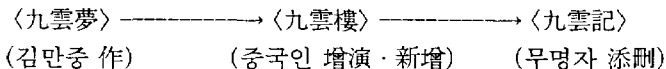
55) 註 32)번 참조.

56) 최용철, 「〈구운기〉에 나타난 〈홍루몽〉의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5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2, 50면.

하면, 15~20면의 분량으로 1책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하겠다. 결국 〈구운기〉는 〈구운루〉에서 ‘자서, 삽화’ 뿐 아니라 본문의 내용도 상당량을 ‘刪’ 했다고 할 수 있으며⁵⁷⁾, 이 ‘刪’을 담당한 자가 일단 無名子로 여겨진다. 즉 〈구운기〉는 〈구운루〉의 내용을 삽화와 자서 부분만 빼고 ‘그대로 필사’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의 내용을 ‘刪’ 하면서⁵⁸⁾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운몽〉, 〈구운루〉, 〈구운기〉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구운루〉와 〈구운기〉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운루〉에서 〈구운기〉로 바뀌는 과정에 전사자(개작자)의 작가의식(개작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無名子의 국적이 문제 되는데, 필자는 無名子가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창작 연대의 상한선이 새롭게 밝혀진 이상, 앞서 언급했던 尹愔가 〈구운기〉의 작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관심을 가지고 고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九雲記〉의 우리 문학사 귀속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이에 관한 사항이 결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운기〉를 구운몽계 소설의 하나로 우리 소설사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국문학계와 중문학계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존 논의들을 쟁점화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공동의 노력

57) 이는 앞서 밝힌 3, 4 항목(3.가춘운을 賈充의 후예로 하였다. 4.다른 인물들도 모두 양소유·가춘운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워 系派(系統, 血統)가 있게 했다.)이 〈구운기〉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데서도 확인된다.

58) 물론 여기서 일정 부분을 새롭게 ‘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添刪 과정에서 전사자(개작자)의 작가의식(개작의식)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⁵⁹⁾

59) 본고는 '한국고전문학회' 제 175차 월례 학술 발표회(1995. 6. 17.)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초고를 다소 보완한 것이다. 그 후 필자는 〈구운기〉의 작자와 국적 문제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찾아 논의를 심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약정 토론자로 나선 장효현 교수의 토론문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쟁점 사항으로 남겨 둔다.

"…… 장효현, 최용철, 유세덕의 논의는 서로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벽로집』 기록의 〈구운루〉가 영남대본 〈구운기〉와 같은 작품이라고 본 점),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작자와 저작 연대), 발표자의 견해는 이와 상당히 달라. 〈구운몽〉→〈구운루〉→〈구운기〉의 관계를 제시하고, 중국인에 의해 창작된 〈구운루〉가 조선인 無名子(尹穡일 가능성도 있는)에 의해 작가의 의식도 개입되어 상당히 添刪된 〈구운기〉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벽로집』 기록의 요점인 5항목과 영남대본 〈구운기〉의 실상과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깊이 있는 숙고를 통한 여러 가능성의 제시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다만 여타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위의 5항목 중) 다른 항목은 모두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려우며, 3항, 가춘운을 가춘의 후예로 설정했다는 기록으로 인해, 〈구운루〉→〈구운기〉의 과정에서 변개, 즉 부분적 添刪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침산의 정도에 대해서도 역시 추정키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저의 생각으로는 '약간의 刪' 쪽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소설 가운데 白話로 지어진 작품이 달리 없는 점에 비추어도, 〈구운기〉를 작가의식도 가미된 '조선인의 개작'으로 보아 우리 소설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아직 신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닌까 합니다. '無名子 添刪'이라는 기록 자체는 필사가가 그 당시 작자를 알 수 없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치에 가까울 듯 하며, 尹穡의 號로 본(윤영옥) 가능성을 조심스레 다시 거론함은 무리일 듯합니다.……"